

가요계 신인 각축전... '보이그룹' 쏟아진다

BTS·워너원 성공에 신인그룹 대거 선보여
YG·JYP·빅히트 등 소속 그룹 차원 승부수
입대·계약 만료 등 선배 그룹 공백도 원인

“올해는 소속 그룹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활을 걸어야 해요.”

최근 만난 음반기획사 임원들의 입에서 곧잘 나오는 얘기다. 어느 해보다 주요기획사의 신인 그룹들이 대거 등장해서다. 데뷔 2~4년 차에도 입지를 다지지 못한 그룹들 사이에선 신인과의 경쟁에서 밀리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 경각심이 생겨났다.

이미 신인 출시표를 던진 기획사는 YG·JYP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를 필두로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AOA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마마무 소속사 RBW, EXID 소속사 바나나컬처엔터테인먼트, 빅스 소속사 켈리피쉬엔터테인먼트 등 다수다. 여기에 상반기 방송될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4인 '프로듀스 엑스 101'에서 '포스트 워너원'도 탄생할 예정이라 신인들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 TXT·있자·트레이저 13·트레이 등 신인 줄이어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신인은 다음 달 데뷔할 빅히트의 새 얼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OMORROW X TOGETHER)다. 세계적인 스타 방탄소년단을 잇는 5인조 보이그룹으로 이미 몇몇 영상과 사진 공개만으로도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들의 SNS 공식 계정 팔로워 수는 10일 기준 트위터 100만 명·인스타그램 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자 수는 공개된 콘텐츠가 없음에도 40만 명에 육박했다. 약자 TXT로 불리는 이들은 3월 4일 데뷔 앨범 '꿈의 장: 스타'(STAR)를 내고 엠넷의 '데뷔 셀러브레이션 쇼'로 첫선을 보인다.

'결그룹 명가' JYP가 워너걸스, 미쓰에이, 트와이스에 이어 선보이는 5인조 걸그룹 '있자'(ITZY)도 선배들의 후광으로 주목도가 높다. 이들은 12일 데뷔 싱글음반 '있지 디퍼런트'(IT'z Different)를 발표한다. '세상의 중심에 선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타이틀곡 '달라달라'를 통해 트와이스와 다른, 걸크러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YG도 1세대 빅뱅과 2세대 워너아이콘에 이어 3세대 보이그룹 '트레이저 13'을 5~7월께 선보인다. 신인 보이그룹 선발 프로그램 'YG 보석함'에서 경쟁한 이들은 13인조로 데뷔한 뒤 7인조 트레이저와 6인조 매그넘으로 분리해 활동한다.

올해 엠넷 '프로듀스 엑스 101'을 통해 탄생할 보이그룹이 일으킬 파급력에 주목된다. 현재 각 기획사가 이 프로그램에 내보낼 연습생을 신중하게 고르는 분위기다. 상반기에 2~3달가량 방송할 예정이어서 하반기에는 워너원의 뒤를 이을 보이그룹을 만날 수 있다.

바나나컬처엔터테인먼트는 19일 EXID 남동생 그룹인 3인조 트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TREI)를 선보인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 역량을 갖췄다는 이들은 이날 데뷔 앨범 '본·본'(BORN: 本)을 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트레이저를 프로듀싱한 작곡가 신사동호랭이는 "음악만으로 리스닝이 가능하면서도 퍼포먼스를 겸비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팀"이라고 소개했다.

◇ "방탄소년단·워너원 성과로 보이그룹 시장성 재확인"
신인 각축장에서 읽히는 흐름은 어느 해보다 보이그룹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최근 2~3년간 방탄소년단과 워너원의 강력한 시그널을 통한 학습 효과란 것이 주요 목소리다.

한때 걸그룹 마켓이 열려 여러 팀이 쏟아졌듯이, 선두 보이그룹이 일으킨 엄청난 파급력과 매출 규모를 통해 시장성을 재확인하면서 보이그룹 육성에 공을 들였다는 설명이다. 1990년대 말 H.O.T. 성공 이후 보이그룹이, S.E.S 히트 이후 걸그룹이 여러 등장했듯이 업계 시그널이 물결을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신은 2015년 62억4천만원에서 2017년 611억7천만원으로, 같은 기간 매출 이익은 122억7천만원에서 924억원으로, 영업 이익은 15억1천만원에서 325억5천만원으로 급증했다. 2017년 기준 전체 매출 924억원 중 국내외 음반 및 음원을 포함한 제품 매출은 463억7천만원으로 50.2%를 차지했다. 2018년 매출액은 2천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팬덤을 가능하는 기본 샘플인 음반 판매량에서도 보이그룹의 강세는 두드러진다.

가온차트 2018년 결산에서 앨범 차트 1~10위는 방탄소년단과 엑소, 워너원이 휩쓸었다. 최정상 걸그룹인 트와이스는 10위에 랭크돼 유일하게 진입했다.

아이돌 그룹이 몇몇 포진한 증권 기획사 본부장은 "중소기획사 빅히트·방탄소년단 한 팀으로 기업 가치 1조 회사를 일군 것은 여러 의미를 내포한다"며 "보이그룹 시장성이 확실히 보이고, 해외 마켓도 열렸



'트레이저 13'

으니 저마다 합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7년 경력의 또 다른 기획사 이사는 "'프로듀스 101'에서 아이오아이 신드롬도 대단했지만, 워너원이 훨씬 강력했다"며 "이런 시그널을 통해 걸그룹보다 띄우기 어렵다고 인식되는 보이그룹 제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선배 그룹들이 입대나 7년 전속계약 만료로 공백기를 보내는 점도 신인 그룹들에게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

이미 빅뱅, 샤이니, 하이라이트, 인피니트, 비투비, 씨엔블루, 비원 에이프 등 다수 그룹 멤버들이 입대해 완전체 활동이 잠시 중단됐다. 1990~1991년생 멤버들도 연내 입대해야 해 앞으로 공백기를 보낼 그룹은 늘어날 전망이다. 걸그룹 중에선 걸스데이가 소진의 전속계약 만료로 팀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고, EXID도 5월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인기 그룹을 보유한 기획사들은 신인과의 동반 성장을 꾀하려는 측면도 있다. 이미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를 잇는 신인 그룹들에게 아이돌 팬들의 시선이 쏠린 것도 선전 효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신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칫 선배가 번 수익을 후배들에게 투입한다는 생각에 팬들 간 갈등이 생겨날 소지도 있다.

유희열의 '대화의 희열' 시즌2 내달 2일 첫방송



KBS 2TV는 가수 유희열(사진)이 진행하는 '월 게스트 토크쇼'인 '대화의 희열'이 다음달 2일 시즌2로 돌아온다고 11일 예고했다.

'대화의 희열'은 지난 시즌에서 사라진 1인 게스트 토크쇼를 부활하며 개그맨 김숙, 국회의원 표창원, 래퍼 겸 프로듀서 지코, 의사 인요한, 축구선수 안정환, 판사 천중호,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강수진, 가수 아이유, MC 송해, 외상외과 의사 이극중 등 다양한 인물을 다뤄 호평받았다.

제작진은 "시즌2에서 시청자들에게 더욱 다채롭고 밀도 높은 대화를 선사하겠다는 각오로, 게스트 섭외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추억의 스타들, 지금은 어디

YTN라이프 '아! 그 사람'

14일 첫방송 '서편제' 오정해

YTN 라이프는 새 프로그램 '아! 그 사람'을 오는 14일부터 방송한다고 11일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지금은 대중의 기억에서 멀어진, 그러나 가슴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는 '추억의 별'들을 찾아가는 토크쇼다.

1회 주인공은 1993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 개봉관 1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서편제' 주연 오정해다. 스스로 "나는 명성이 아닌 그저 소리꾼"이라고 말하는 그는 논문 송하 역을 제대로 연기하기 위해 촬영 6개월이 지나도록 대사 한마디 없이 걷는 장면만 찍고 또 찍은 당시 상황을 회고한다.

진행은 MC 겸 배우 유승민이 맡는다.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20분, 밤 10시 10분, 금요일 오후 1시 방송.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아(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이템(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동네번호사 조들호 2 :죄와 벌(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재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험설계
[1]	00 KBS네트워크특선 거북이 뉴스 50 새만금 표류기(재)		25 뿌까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와이드 코리아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00 자동차부채상 위기 2 30 TV 유치원	25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55 뽀빠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판다랑 55 5 MBC 뉴스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삼청동 외할머니(재)	15 차종우돌 만국 유람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재)
[7]	00 KBS 뉴스 7 40 전라도 매력청	50 원순집이 아내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프리즘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강주룡>			
[10]	00 시사기획 창 55 UHD 숨터	00 동네번호사 조들호 2 :죄와 벌	00 아이템	00 해치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KBS 스페셜	10 6자회담 1~2부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5 KBS 뉴스 45 KBS 결집 다크멘터리(재)	40 스포츠 하이лай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톡! 보니 하니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크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당신이 꿈꾸는 그 곳 콜롬비아 2부 엘베라부족을 찾아서)
08: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15 파프리카	<한반도 평화기행 -다시 꿈꾸는 DMZ, 고성>
09:00 뽀뽀뽀 뽀로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EBS 다크프라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2	22:45 조식포함 아파트
09:40 메디컬 다크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3:5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이(재)	24:50 한국영화특선 <광해, 왕이 된 남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카레 치킨과 유자배추 샐러드>	16:45 당동맹 유치원1~2	
	17:15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선택과 집중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48년생 택이 쌓인다면 길성을 부르리라. 60년생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 72년생 흔한 일은 아닐 터이니 잘 살펴보자. 84년생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겠다. 행운의 숫자 : 02, 07</p>	<p>42년생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54년생 형세를 타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66년생 지금 코앞에 전개되고 있는 바가 목적하고 있던 바로 그것이다. 78년생 전반적인 관리에 세심한 공을 들여야 할 때다. 90년생 대책 마련으로 부실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93, 76</p>
<p>37년생 전문성이 옳은 판단으로 이끈다. 49년생 조짐이 예상되니 완벽하게 대처 해야겠다. 61년생 목적하는 바와 동떨어져 있다면 무의미하다. 73년생 미련을 버리는 것이 능률적인 판국으로 이끈다. 85년생 입장의 차이를 벗어나서 얘기해 보라. 행운의 숫자 : 04, 23</p>	<p>43년생 고귀함을 이루는 마당이 펼쳐진다. 55년생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정성이 필요 하느니라. 67년생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안개 양상이다. 79년생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하겠다. 91년생 의외로 결과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행운의 숫자 : 86, 44</p>
<p>38년생 번민이 험싸일 수도 있다. 50년생 관련시키지 말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62년생 선수를 가려서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에 와 있다. 74년생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86년생 우연한 행운이 상당한 기쁨을 안겨 주는 형세이다. 행운의 숫자 : 69, 67</p>	<p>44년생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56년생 정확한 분석과 신속한 행동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68년생 시간 낭비만 할 뿐이다. 80년생 힘들더라도 과정에 충실하다 보면 금전운에 대박 나게 되어 있다. 92년생 사람들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53, 81</p>
<p>39년생 발일 없을 것이니 부담감을 버려도 된다. 51년생 중국적으로는 성사 되리라. 63년생 직접 찾아가서 깔끔하게 처리해야 명쾌하리라. 75년생 관점의 차이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87년생 우회하여 표현하는 것이 무리가 없겠다. 행운의 숫자 : 51, 43</p>	<p>45년생 유동적 가변성을 인식해야 하리라. 57년생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편해질 수밖에 없다. 69년생 결단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약제가 보인다. 81년생 비속하다면 적당한 선에서 상쇄하는 것도 좋다. 93년생 고수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2, 64</p>
<p>40년생 표현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작용하고 있느니라. 52년생 유창한 능변에 휘둘릴 수도 있다. 64년생 내면적 실정에 충실함이 이의이다. 76년생 강운을 조절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가 되자. 88년생 문젯거리로 비화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9, 56</p>	<p>34년생 길경의 해가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다. 46년생 폭넓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이의이다. 58년생 취약점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관심을 가져라. 70년생 과단성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 82년생 선례를 참고한다면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2, 03</p>
<p>41년생 전방위적인 정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53년생 시각적으로만 판단하면 오류가 생긴다. 65년생 방심하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77년생 내일을 위해서 아껴두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89년생 독창성을 상실한다면 무의미해진다. 행운의 숫자 : 39, 09</p>	<p>35년생 자제한다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겠다. 47년생 배가 된 노력의 경주대에 승선이 있다. 59년생 강구하더라도 쉽지 않은 양을 사리리라. 71년생 기다린 소식이 대신 더 중대한 위치에 이른다. 83년생 치밀한 대처 없이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01, 96</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